



The 40<sup>th</sup> Anniversary Bulletin of Korean Diabetes Association

# 40주년 기념신문

발행처 :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사업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빌딩 10층 1010호 우:121-706  
TEL. 02) 714-1968 / FAX. 02) 714-9084 발행인 : 최동섭 편집인 : 유형준

6호 2008년 8월  
www.diabetes.or.kr



●●● 40주년 기념인터뷰 ⑥ 17대 회장 김영건 교수

## 충청지회 창립 학회 전국화에 앞장서다

"40주년 기념 원로교수 인터뷰"는 학회 역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원로회원의 고견을 듣는 자리로, 그 여섯 번째 인물은 2000년 제17대 회장직을 역임한 김영건 교수이다. 김영건 교수는 현재 충남의대 내분비내과에 재직하고 있다. 인터뷰는 3월 19일(수) 오후 5시 충남대 병원 김영건 교수 진료실에서 열렸으며, 진행은 유형준 40주년기념사업단 실무추진위원장이 맡았다. <편집자>

어느 인터뷰보다 촬영 전 준비가 많이 분주했다. 화분을 가지고 오고 인체 모형도, 책 등을 날라왔다. 인터뷰 도중에도 촬영기사의 요구로 김영건 교수는 몇 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해야 했고 자세를 바꾸어야 했지만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넉넉한 웃음으로 협조를 해주었다. 인터뷰 내내 그의 당뇨병 연구에 대한 열정, 후학들에 대한 애정, 환자들에 대한 사랑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2면으로 이어짐>



### 40주년 신문은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01

02

03

04

17대 회장  
김영건 교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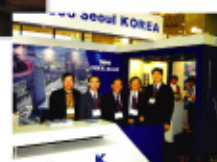
40주년 기념사업단  
경/과/보/고



기념우표 기부금 모금 현황 / 「40년사」 제작  
40주년 기념만찬 복분자 와인



역사의 현장  
2006년 IDF 대회  
유치준비위원회 발족



사진으로 보는  
당뇨병학회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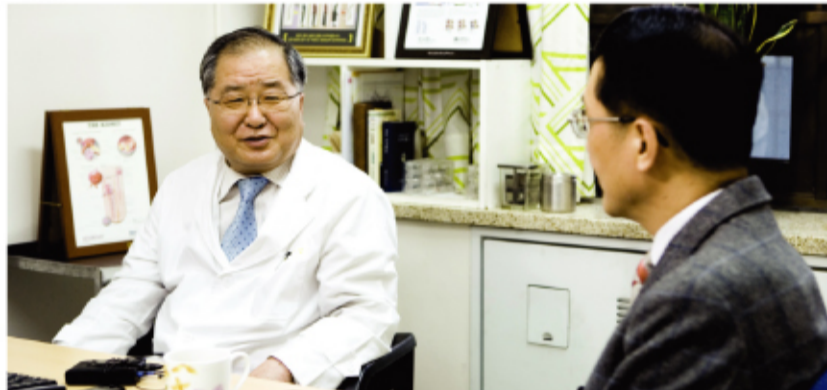
# 충청지회 창립 학회 전국화에 앞장서다

<1면에서 이어짐>

**유형준(이하 유) :** 우리 학회가 금년 10월 4일이면 40주년을 맞이합니다.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건(이하 김) :** 한마디로 너무 많이 발전했죠. 68년에 당뇨병학회가 창립하고 초창기에는 회원도 얼마 안되었어요. 그 당시 저는 레지던트 1, 2년차였는데 학회 회원이라기보다는 심부름꾼으로 참가했지요. 신순현, 이흥규, 노흥규 교수가 동기인데 네 명이 레지던트 끝나고 모두 내분비 당뇨를 했으니까 40년을 함께 온 셈입니다.

그때는 지방 회원은 거의 없었고 서울에서 30여명이 조출하게 당뇨병학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엇그제 같은데 이제 이천여 명이 넘는 회원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니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게지요. 질적인 면에서도 처음에는 집담회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 짤막한 말씀을 주셨지만 선생님의 눈가에 어린 40년간의 감회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000년 제17대 회장님으로 활동하시는 등 학회에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당시 회장제에서 이사장제로 바뀌었고 단계별 당뇨병 관리(SDM) 교육이 시작되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거나 보람으로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김 :** 사실 이사장제로 바뀌면서 이사장이 거의 모든 일을 다 하고 회장은 이사장이나 이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당시 학회에 변화가 많이 있었지요. 학회 제도만 바꾼 것이 아니라 홍보 활동도 시작했고 비디오 2판 발행도 그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뇨병환자 이면서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을 잘 할 수 있는 방도를 많이 생각했던 때였어요. 좀더 환자들에게 당뇨병 교육을 많이 하자는 계획이었지요.

**유 :** 2000년 회장직을 맡으셨을 때 외에도 학회의 성장과 발전을 보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이나 혹은 아쉬웠던 일이 있으시다면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김 :** 아쉬웠던 것이 너무 커서 그것부터 말할까요. 정말 어렵게 따낸 IDF 대회 개최 건을 허무하게 잃으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어렵게 고생해서 유치 건을 따왔다가 작은 일 때문에 놓쳤지요. 앞으로 IDF 대회 개최를 다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 후배들이 노력해서 꼭 개최 건을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유 :** 분발하겠습니다.

**김 :** 보람 있었던 일은 초창기 미흡하게 시작되었던 충청지회를 어느 정도 발전된 궤도에 올려놓은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여기는 서울과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서울에는 학교도 많고 교수님도 많지만 지방은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학교는 7~8개가 되는데 당뇨병을 전공하는 스태프가 열명도 안 되었어요. 그래도 환자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보자 해서 캠프도 하고 당뇨병주간 행사라든가 걷기 대회 같은 것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회를 성장시킨 것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환자들에게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합병증이 오기 전에 철저히 치료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 :** 충청지회를 손수 만드셔서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아 수고하고 계신데 충청지회의 사업에 대해 좀더 말씀해주시죠.

**김 :** 주간행사 등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충청지회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차례 당뇨캠프를 했는데 처음에는 참여를 독려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신청자가 많아 오히려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뇨캠프를 해보면 환자들이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을 잘 몰라 적절한 치료를 못해 합병증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진료하면서 한두 마디 하는 것으로는 안되고 캠프처럼 환자와 많이 접하는 기회를 만들어야지요.

**유 :** 당뇨캠프를 비롯하여 학회가 사회를 향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김 :** 당뇨버스도 있었고 일년에 한번씩 세계 당뇨병의 날에 맞춰 행사도 하고 있고 학회 나름의 당뇨캠프도 하는 등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학회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부당국이 결핵사업처럼 당뇨병에 대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당뇨병이 뭐라는 것,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함께 선전, 지원해줄 때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지요. 그리고 이걸 좀 다른 이야기인데 열정적인 젊은 의사들이 해외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는 과정을 지금은 너무 개인적으로만 하고 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힘들지요. 학회 차원에서 유명한 해외 연구센터와 관계를 맺으면 후학들의 연구를 독려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 :** 마지막으로 후학들이 명심해야 할 보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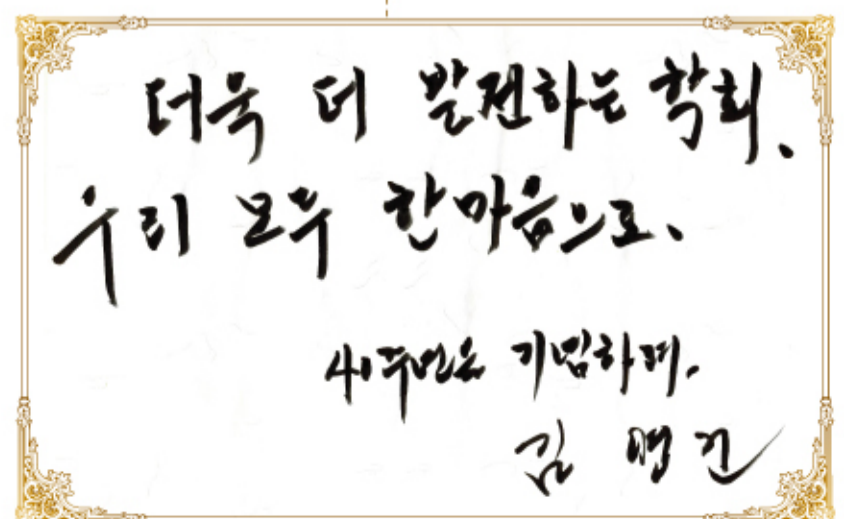
**김 :**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너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작은 생각만 갖지 말고 남이 무엇을 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미국에 가지만 미국이 아니더라도 나가서 보고 배우고 많이 넓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한곳을 파야겠지만 젊을 때는 더 넓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 :** 감사합니다.

김영건 교수는 부친 김웅진 교수의 뒤를 이어 당뇨병에 발을 담갔고 영애 김현진 교수까지 그 뒤를 이어 3대가 당뇨병 연구와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그만큼 김영건 교수의 당뇨병 연구와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은 크고 남달랐다.

인터뷰가 끝난 뒤 김영건 교수는 서울에서 찾아온 인터뷰 담당자들을 병원 근처 고깃집으로 안내해 직접 고기도 구워주고 보리소주도 맛 보여 주었다. 택시 타고 가는 것을 한참 기다려 배웅해 준 뒤 김영건 교수는 지하철을 타러 갔다.

김영건 17대 회장의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 휘호



## 기념우표 기부금 모금 현황

총 216명 12,450,000원 (8월 13일 현재)

"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우표-당뇨병환자를 위한 사업기금 조성" 기부금 모금을 시작한 이후 8월 13일까지 총 216명 12,450,000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7월 17일부터 8월 13일까지 기부금 모금에 참여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문호(강문호내과)	유재희(가천대병원)
김동선(한양대병원)	이은정(전남대병원)
남홍우(국립의료원)	정태식(경상대병원)
박요한(고신의료원)	조성원(조성원내과)
신동문(부산대병원)	

## 기념우표 구입하세요!!



현재 기념우표 재고가 300부 가량 남아있어 필요하신 회원님들께 판매하고자 합니다. 가격은 전지 한 장당 1만원입니다.

구입하시려는 매수만큼 입금하신 뒤 기념사업단으로 전화나 메일 주십시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입금계좌 : 국민 392801-04-067336 (재단법인당뇨병학회연구재단)

연락처 : 02) 714-1968 (40주년 기념사업단)

이메일 : kda40th@diabetes.or.kr

## 『40년사』 제작

## 디자인 2단 편집 결정

『40년사』 제작을 담당하는 다니기획에서 디자인 시안을 보내와 기념사업단에서 8월 4일(월) 10차 회의를 통해 디자인 1차 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가독률을 높이고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2단 편집으로 본문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 인물 사진, 전문 사진기사가 촬영

『40년사』에 실릴 인물 사진을 전문 사진기사가 촬영하기로 결정했다. 발간사, 권두사, 회고담, 청탁 원고 등을 작성한 회원의 사진을 『40년사』에 게재할 때 '표정과 느낌이 살아있는 사진'으로 실어 책 전체에 생동감을 부여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 40주년 기념만찬 복분자 와인

10월 31일(금)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끝난 뒤 진행될 40주년 기념만찬에 40주년 기념 복분자 와인이 제공될 예정이다. 제공될 복분자 와인은 100% 1등급 정통 복분자 와인으로, 와인병에 40주년 기념 엠블렘을 에칭조각할 계획이다.



## 역사의 현장 - 2006년 제19차 IDF 대회 유치 준비위원회 발족 (1997년 3월)

세계로의 힘찬 도약  
학회 발전의 큰 밑거름 되다

1990년대를 통틀어서 대한당뇨병학회의 자신감과 패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업은 세계를 향해 큰 발을 내딛고자 했던 '2006년 세계당뇨병연맹(IDF) 대회 유치 준비위원회'의 발족이었다.

2006년 열리는 IDF 대회를 서울에 유치하자는 발의는 1996년 5월 17일 평의회 석상에서 당시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광원 회원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해 11월 IDF 대회의 서울 유치 준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이듬해인 1997년 3월 '2006년 IDF 대회 유치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997년 5월 IDF-WPR 홍콩 대회, 같은 해 7월 제16차 IDF 헬싱키 대회, 1998년 9월 유럽당뇨병학회(EASD)와 2000년 11월 제17차 IDF 멕시코시티 대회에서 한국 홍보관 부스를 여는 등 세계의 당뇨병자들을 상대로 대한당뇨병학회에 대한 홍보를 펼쳐나갔다.

2001년 5월 15일, 2006년 제19차 IDF 대회의 서울 유치가 결정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여러 나라와의 치열한 경쟁을 뿌리치고 6년여의 유치 노력 끝에 획득한 쾌거이기에 학회 회원들의 감격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1968년 창립된 이래 30여 년간 국내 당뇨병환자의 진료 및 교육과 당뇨병학 연구에 매진해 온 대한당뇨병학회는 2006년 IDF 대회 유치를 통해 1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학술대회를 주관할 정도로 성장했음을 대외에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에는 1981년부터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을 꾸준히 열었고, 1993년 IDF-WPR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배양된 역량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3년 4월 3일 IDF 본부가 갑자기 코엑스와의 계약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회 개최 장소의 변경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학회에 보내왔다.

자신들이 예상하는 액수보다 대회장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 조직위원회가 직접 개입해서 코엑스와의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했다. 뭔가 일이 꼬이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학회는 그 해 12월 23일 IDF 본부로부터 개최지가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말았다.

손호영 조직위원장은 "이번 행사 취소 건은 마치 월드컵 대회 유치가 결정됐는데, FIFA와 상암경기장 관계자가 임대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어서 대회 자체가 취소된 것이나 다를 게 없다"고 비유했다.

개최국 조직위원회가 IDF 본부의 동반자에 불과한 역할도 상황이 그렇게까지 악화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다. IDF 본부와 코엑스가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학회는 멀쩡히 눈 뜨고 개최지를 강탈당했다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좌절과 분노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2004년 1월 1일 취임한 이현철 이사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학회의 국제역량 강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이를 위해 이사 중심의 학회 운영, 지회의 활성화, 국제학회를 대비한 연구 활성화 및 연구비 지원 강화, 한국인 당뇨병의 특성을 다룰 역학·진단·치료 소위원회의 재설치 등 여러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학회의 분위기를 추슬러가기 시작했다.



〈1997년 7월 헬싱키에서 열린 제16차 IDF 대회와 2002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IDF-WPR 대회에서 학회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2006년 IDF 대회 서울 유치를 홍보하는 모습. 비록 실패로 끝이 났지만 대한당뇨병학회는 머지않은 미래에 IDF 대회 개최의 꿈을 이룰 것이다.〉

# 사진으로 보는 1990년대 당뇨병학회

**당뇨병의 날 기념 제1회 당뇨병 공개강좌**  
주제: 당뇨병을 알자  
1992년 6월 27일(토)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대한당뇨병학회 후원: 제당노, 녹십자(주)



1992년 6월 27일 세계당뇨병의 날을 기념하여 제1회 대국민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학회가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이라는 분명한 선언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강좌를 연 것이다.

**3th Japan - Korea Symposium  
Diabetes on Mellitus**  
October 5~6, 1995



1995년과 1997년 열린 8차, 9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 사진. 1981년 이래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은 꾸준히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어 아시아 당뇨병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당뇨병 연구 하계 WORKSHOP 1998**  
일시: 1998년 8월 22일 (토) 주최: 대한당뇨병학회 후원: 한국오츠카제약(주)



1993년 시작된 연구 워크샵은 매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며 한국의 젊은 당뇨병 연구자들에게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 습득, 공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사진은 1998년 당뇨병 연구 하계 워크샵에서 김두만 회원이 발언하는 모습.

**제1회 당뇨병 교육자 인정증 수여식**  
일시: 1999년 12월 27일



학회는 당뇨병환자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해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은 1999년 12월 27일 제1차 당뇨병 교육자 인정증 수여식.

대한당뇨병학회



1998년 6월 22일 학회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식이 열렸다. 사이버 세계에 또 하나의 당뇨병학회를 탄생시킨 쾌거를 자축하는 자리였다.



1998년 11월 4일 당뇨버스가 출범하여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조기에 당뇨병 진단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찾아 달리기 시작했다. 사진은 당뇨버스 외관과 내부.